

임실N치즈, 6차산업화 주도

농식품부 지구조성 사업 대상지 선정... 3년간 30억원 투입 클러스터 조성

50여년의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임실N치즈'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6차산업화 선도모델로 우뚝 서게 됐다.

임실군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2018년 6차산업화 지구조성사업에 '임실N치즈'가 최종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 6차산업화 지구조성사업 대상지로 전국적으로 4개 지구를 선정했으며, 이 중 임실군은 강원도 영월과 전남 곡성, 충북 음성과 함께 전북을 대표하는 사업대상지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임실군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30억원(국비 15, 군비 13.7, 자부담 1.3)을 투입해 대대적으로 임실N치즈 산업 전반을 주도하는 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게 됐다.

6차 산업화 지구조성사업은 농촌의 1차와 2차, 3차 산업 자원을 활용해 전·후방 연관 산업이 융복합된 지역 특화산업 클러스터를 육성하는 사업이다.

특히 농가의 소득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농촌 활성화를 목표로 두고 있어, 이 사업이 추진되면 임실군은 치즈산업을 통해 지역경제의 엄청난 상승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과정에서 임실N치즈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브랜드 인지도와 농민-행정-기업-유관기관간의 협업시스템을 통한 매출액 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 등 대한민국의 6차 산업화를 이끌어갈 선도모델로서, 미래 가치가 매우 뛰어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임실N치즈는 1차 산업인 낙농업과 2차 산업인 치즈 및 유제품 가공업, 3차 산업인 치즈체험관광을 통해 6차산업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면서 농업의 6차산업화 대표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임실군은 6차산업화 지구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6차 산업 공동인프라 구축, 네트워크 및 주체역량강화, 고부가가치 및 지역브랜드 등 3개 분야의 11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이 완료될 경우 임실N치즈의

브랜드 위상은 한층 더 강화되고, 낙농업과 유가공업, 치즈체험관광의 가파른 성장에 예상되고 있다.

군은 한편 6차산업화 지구조성사업 선정을 위해 핵심사업구역을 임실치즈마을과 치즈테마파크, 낙농가, 유가공업체 대표, 치즈체험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실무 추진단(T/F)을 구성, 10여 차례의 회의 및 토론회를 거쳐 등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 왔다.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치밀하게 사업계획을 수립, 중앙 평가단의 현장평가와 발표평가 등 엄격한 심사기준에 맞춰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응해 왔다.

심민 군수는 "이번 선정을 계기로 임실N치즈산업의 6차산업화를 완성해 임실치즈마을, 임실치즈테마파크, 임실군의 체험마을이 고부 성장하는 일석이조의 성공적 모델로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산업으로 무한한 성장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여성문화센터 평생교육 수강생들이 자체동아리를 구성해 제작한 나눔물품 30여만원 어치를 3일 남원시희망복지지원단에 전달했다.

“어려운 이웃에게 전해주세요”

남원 여성센터 평생교육 수강생 나눔물품 제작 전달

남원시 여성문화센터 평생교육 수강생들이 자체동아리를 구성해 제작한 나눔물품 30여만원 어치를 3일 남원시희망복지지원단에 전달했다.

올해 상반기 여성문화센터에서는 주야간 34개 과정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했고, 그 가운데 10과정 수강생 92명이 교육수로 후동아리를 구성했다.

천연화장품·아로마양초자격증, 홈패션(2), 생활양재(2), 캘리그래피(2), 제과제빵, 커피공예, 바리스타 과정 수강생들은 동아리구성을 통해 못 다한 배움의 여정을 이어나가며 우정을 쌓는 시간을 가

졌다. 그리고 시에서 재료비를 지원 받아 이웃과 나눔 아로마양초, 여름비블, 예코백, 빵, 커피드립백 등 12종의 물품을 제작해 남원시희망복지지원단을 통해 생필품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배움과 나눔의 기쁨이 두 배가 되는 남원시 여성문화센터 하반기 평생교육은, 티마스터 과정 등 31개 과정에 460여명 수강생을 모집 할 계획이다. 8월 17일부터 25일까지 남원시에 주소지와 직장 소재지를 둔 자는 누구나 수강신청이 가능하다. /남원=유영철 기자

천도교 임실교구사 재조명

김영원 선생 역사 발원 귀중자료 380건 수집

천도교 임실교구와 김영원 선생의 역사를 밝힐 중요한 자료가 수집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임실군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삼오정(三樂亭)의 김창식 선생 등이 소장하고 있던 영수증, 명단, 친필 필사본 등 약 380건의 자료가 수집됐다.

삼오정은 운암면 선거리에 있는 현충시설로 3·1독립운동 발상지라는 이유로 강제 철거된 후 지난 2002년 복원됐다.

수집된 자료는 천도교 임실교구 교세의 변화를 볼 수 있는 자료들로 김영원 선생의 손자 김정갑 도장이 모은 자료와 최봉성의 고손 최기주씨로부터 입수했다.

임실교구 교원명단, 삼미남부자 영수증첩, 각종 도첩 및 전인증 등을 비롯해 최기주씨의 부친 최동안 선생이 지난 1980년에 쓴 친필 필사본 '천도교 임실교사 최초본' 등 약 380건 정도이다.

특히 김영원 선생의 남원부 과거담

안지를 비롯해 지난 1878년~1879년 무성서원 책장, 임명장 등 약 70여건의 수집품은 동화에 입교하기 전 유학자의 면모를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자료 수집을 진행한 김철배 학예사는 "현재 문화재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천도교 임실교구청의 교세는 물론 그 역사를 정리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며 "나아가 1997년 이후 20년 만에 진행되는 '임실군지' 편찬사업과 2019년 3·1만세운동 100주년 기념 전시회 등 다양한 형태로 재조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국훈장 애국장에 추서된 김영원 선생은 지난 1853년 운암면 선거리에서 태어나 1889년 동학에 입교한 인물로 천도교 임실교구 제4대, 6대 교구장을 지냈다.

1919년 3·1만세 운동 참여 후 왜경에 체포돼 같은 해 8월 26일 옥중에서 순국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박차

순창군, 대당 2천만원 지원

순창군이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을 추진한다.

친환경차에 대한 국민 인식이 높아지고 전기차 수요가 지속적 상승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환경부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급대수는 8대이며 대당 2천만원을 지원한다. 접수기간은 31일까지 지원자격은 공고일 이전 순창군에 주소를 둔 군민 또는 순창군 소재 기업, 단체, 법인 등이다.

순창군 환경수도과에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순창군민, 관기업, 단체, 법인 등을 우선 선정한다.

1순위 선정은 국가유공자, 장애우(1~3급), 다자녀가구, 2순위는 순창군민, 관기업, 단체, 법인 등을 우선 선정한다. 구매 보조금을 받은 사람들은 타 도지역(5년) 소유권 이전 및 판매가 금지된다. /순창=이영원 기자

순창군 소규모 공연장 완공

순창군 일품공원에 소규모 공연장이 완공돼 앞으로 군민 취미와 문화증진 자료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보인다.

군은 최근 일품공원에 1억 5천만원을 투자해 10여명 정도가 공연을 펼칠 수 있는 소규모 공연장을 완공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완성한 공연장은 관객들의 거리를 최대한 좁혀 공연팀과 관객들이 같이 호흡하고 즐길 수 있도록 만들었다. 무대는 가로 17m 세로 8m, 64㎡규모로 관람석에는 그늘막도 설치해 군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었다.

군은 기존 공연장이 일품공원과 너무 떨어져 있고 생활동호회처럼 소규모 공연팀이 공연을 하기에는 규모가 커서 관객들의 몰입도가 떨어진다는 여론에 따라 일품공원에 소규모 공연장을 완공했다.

특히 바다분수 바로 옆에 공연장을 위도 피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으로 군 측은 기대하고 있다. 소규모 공연장 첫 공연은 오는 5일 토요일 오후 7시부터 생활문화예술통합회의 엘리트스포츠탈스, 한울타리밴드 공연 등 5개 팀의 공연으로 시작된다.

황숙주 군수는 "이번에 완공된 소규모 공연장은 생활문화예술통합회 등 다양한 군민들이 평소 길러왔던 끼를 선보이고 보다 가깝게 군민과 호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었다"면서 "다양한 문화공연을 진행해 많은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영원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